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3월

선교편지 제 9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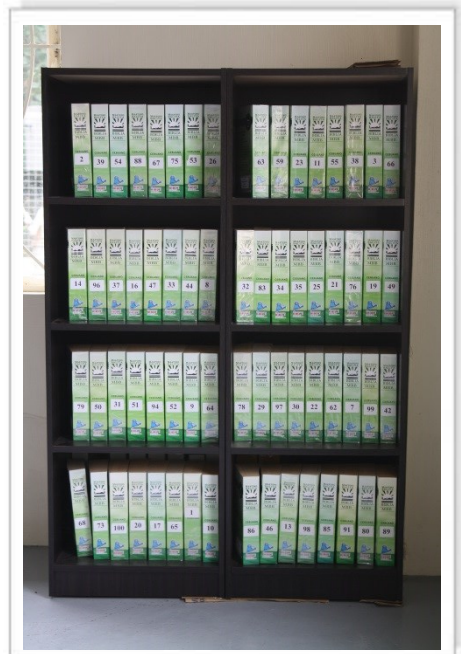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집이나 직장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다양한 '성경'들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곳 선교지에서는 교인이라도 성경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디고스에 약 25만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책을 파는 '서점'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형편인지라, 한가롭게 책을 사서 보는 환경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성경을 구입하여 신앙 생활 하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보편화 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표준어가 아닌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선교 기관의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오랜동안 수고하고 있지만, 175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필리핀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생각처럼 손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로를 통하여 특별히 주문해야만 제한된 수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면서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길을 열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현지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신, 구약 합본으로 된 성경은 아니지만, 현지어로 된 신약 성경과 요한복음이나 시편등과 같은 소위 쪽복음등을 디고스에 있는 각 고등학교와 교도소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성경을 받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약 150년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을 전해 준 '토마스' (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의 심정으로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년전부터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각종 시상을 비롯한 축하의 선물은 단연 현지어로 된 신구약 성경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고스 예일 교회의 예배당 입구에는

150여권의 현지어로 된 성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되지 못하여 성경을 받지 못한 교인과 교회에 새롭게 출석을 시작하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마침내 금년초부터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말부터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와 함께 적지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이들에게, 과연 성경을 매일 읽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교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부작용(?)을 갖게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라도 시작한 해 보겠지만, 참여하는 자들이 적어서 중도에 포기하여 '성경일독'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눌한 언어로 제가 백마디 열변을 토하는 것 보다, 본인이 단 한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각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기대와 믿음으로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인들이 66권이냐 되는 성경 목록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목록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릴적 배운 '신구약 성경 목록가'를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현지 목회자들을 통하여 현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 목록을 기억하고 있는지 수소문 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성경 목록을 노래나 혹은 약자를 통하여 쉽게 외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현지 신학교에서 순서대로 암기하였고, 자주 읽다보니 익숙해져서 기억을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생소한 성경 목록을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우리 디고스 예일 교회의 두명의 부교역자들에게 현지인들이면 누구나 익숙한 노래에 성경 목록을 가사로한 '성경 목록가'를 직접 제작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소한 요청에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는지, 현지인들의 입에 착착 붙을 정도로 쉬운 성경 목록가를 한곡도 아닌 '구약 성경 목록가'와 '신약 성경 목록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교인에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주일이 되면 오전 10시 정규 예배 시간보다 한 시간이 이른 오전 9시에 '성경일독'을 위하여 교인들이 모입니다. 우선 자체 개발에 성공한 '성경 목록가'를 다함께 힘차게 손뼉을 치며 부르면서 성경 목록 암송을 확인합니다. 이제 시작한지 겨우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성경 목록을 암송하고, 어렵게만 보였던 성경과 친해진 교우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목록 암송 이후에는 성경읽기 일정표에 따라 그 주일에 읽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대하는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의 배경과 함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고, 일정표 중에서 해당 주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룹별로 앉아서 돌아가며 읽는 것으로 '성경일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일정표에 따라 지난달에 성경을 완독한 교인들에게 푸짐하게 시상하고 있는데, 상품을 준비하기가 버거울 정도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 주일 정해진 분량을 완독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기에 '성경일독'을 계획하면서 선교지에서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교우들과 교회 전체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밝은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디고스 예일 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지 전체가 말씀이 살아 역사 하는 생생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작년 11월부터 익핏 지역의 익핏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교회 건물이 아닌 초등학교 교정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익핏 예일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위해서 오후 1시경에 현지 교역자들과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교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정해준 창고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포함한 모든 집기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의자를 옮기는 것을 돕겠다고, 창고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의자, 음향 장비, 악기등을 설치하고, 교회 현수막을 걸면 예배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준비가 되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장과는 협의가 잘 되고 있지만, 주일에 학교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학교 교문이 닫혀있거나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락을 하려해도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악기와 음향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던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저와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어른들까지 담을 넘어 들어 오게 할 수는 없어서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예배는 종종 중단이 되곤 했습니다. 매월 익핏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장 선생들과 협의를 하는데, 이때마다 매우 완곡하게 어려움을 표해서 지금은 현저히 개선이 되었지만, 흩어졌던 주민들을 다시 모으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기 직전에 학생들의 출석을 일일이 확인하고, 어른들과 함께 찬양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참석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단 한명만이 타 지역에 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도 어린학생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준비한 말씀을 같이 듣게하고, 2부 시간에 어른과 아이들이 나뉘어서 별도의 특별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지만, 어른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별도의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떠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함께 모여서 간식을 나누며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이 때를 맞추어 동네 개들도 모여들기 시작 하는데, 지난 주에는 아홉 마리의 개가 출몰하여서, 필리핀 개들과도 현지어로 유창하게 대화가 되는 제 아내가 분주하게 동네 개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과 익핏 지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모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에 출석하는 띠구만 아이들을 주중에 마을에서 만나면 어렵게 사는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만큼은 아이들을 깨끗하게 단장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하지만 익핏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익핏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석하는 모습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자라는 말 보다는 ‘학교’에 가자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쁘게 참석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디고스 예일 교회 교인들도 익핏 지역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익핏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익핏 예일 교회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자원하여 함께 참석하는 교인들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조 교사로 3명의 장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회이지만 복음을 나누며, 함께 수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지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핏 예일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익핏 지역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 1:8)**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